

다시금 심각한 질병이 된 결핵

글 □ 편유장(예천권병원 호흡기내과 진료부장)

난
치
병?

결핵의 치료법

결핵의 치료는 약물로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물로 치료가 안 될 때 수술을 하든지 면역요법을 하든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결핵에 약이 잘 안 듣게 될까? 약물의 내성 때문이다. 약물의 내성이란 약을 사용하였을 때 그 약물의 공격에 세균이 거뜰히 견뎌내는 경우이다. 약물의 공격에 세균이 견뎌낸다면 세균의 활동성이 강해진다. 세균이 활동이 많아지면 당연히 병이 악화된다. 약물이 세균에 제대로 작용하려면 내성이 없어야 하는데 요즘의 결핵에서는 이러한 내성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지닌 결핵균이 대두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제내성결핵'이다.

다제내성결핵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결핵약제에 의한 정확한 치료가 중요하다.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결핵이란 몸이 약해서 생긴다고 하여 몸을 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약을 지어다 먹이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여기의 지면에서 항결핵약제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다.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여야만 주변을 평안히 유지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직도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들어간다. 일반적인 결핵이라면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결핵일 때, 간단히 약물로서 치료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엉뚱한 치료가 되어 병을 악화시킨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결핵은?

최근의 의학 전문가자들의 언론 보도를 보면 난치성 결핵이란 말을 종종 보게 된다. 즉, 치료가 잘 안 되는 결핵이란 뜻이다. 특히 예술인 중에 각혈을 하며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추측컨대

다제내성결핵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결핵약제에 의한 정확한 치료가 중요하다.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결핵이란 몹이 약해서 생긴다고 하여 몸을 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약을 지어다 먹이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그런 각혈의 원인 대부분은 결핵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뚜렷한 항결핵약제가 없는 상태에서 결핵의 중요 치료법은 수술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수술적인 방법이 쇠퇴하게 된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이러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다름 아닌 약제의 내성 때문이다.

이렇게 항결핵약제를 투여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결핵을 다제내성결핵이라고 한다.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항결핵약제 중에 대표적인 약제 두 가지, 즉 아이나와 리팜핀이란 약제에 내성이 생겨버린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 다른 약제를 고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러한 약들은 예전에 썼던 약이 많다.

이러한 약들은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여야 한다. 그러다 이러한 약들에까지 내성이 생겨 결국은 완치 방법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방법이 약물 요법과 병행한 수술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다제내성결핵은 왜 생겼을까? 다름 아닌 항생제 내성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처럼 일반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항생제에 대해 맹신하는 나라도 없을 듯하다. 진료를 보다 보면 뜬금없이 마이신(흔히들 나이 든 분들이 항생제를 이렇게 표현함) 주사를 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배가 아파도 마이신 주사, 머리가 아파도 마이신 주사. 물론 일부의 경우이겠지만 대체적으로 항생제를 지금까지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항생제 중의 하나가 항결핵약제이다.

의약분업이 되기 전 필자가 공중 보건의로 일하던 시절 시골의 일부 약국에서 기침을 오래하면 리팜핀이란 약을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대로 주어 버리는 경우를 목격했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있는 일이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결핵을 진단받고 적절한 약만 잘 먹으면 치료가 잘 되는 일반적인 결핵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일부는 엉뚱한 한약재를 결핵 치료한답시고 약 대신 먹거나 하여 불완전한 치료를 하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일반적인 결핵을 다제내성결핵 즉 난치성 결핵으로 탈바꿈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이러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성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요즘 세상에 결핵으로 죽는 경우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높은 편이다. 물론 일반적인 결핵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이 이러한 결핵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엉뚱한 치료가 되어 치료의 적절한 방법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이다. 즉,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하게 된 경우이다.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이러한 다제내성결핵을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방법은 일반적인 결핵일 때 표준적인 치료를 잘 받는 것이다. 필자는 결핵이라는 병에 있어 최고의 명의를 얼마만큼 표준적인 치료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결핵과 비슷한 다른 질병은?

요즘 또 하나 떠오르고 있는 질병 중의 하나로 '비결핵성항산균증'이라는 것이 있다. 결핵균은 크게는 세균 분류에서 항산균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항산균 중에 결핵균 외에 여러 세균이 이들 분류에 속한다.

항산균은 세균에 특수한 염색을 해보면 빨갛게 보인다. 이런 예전에는 거의 무조건 결핵으로 보고 결핵으로 진단 후 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치료를 한 경우 중에서 결핵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

한국의 유명 병원에서 낸 대략적 통계에 따르면 10% 정도가 결핵이 아니고 다른 항산균에 의해 발병을 하는 경우였다. 결핵이 빈번했던 시절에는 비결핵성항산균증에 대해 거의 생각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결핵의 유병률이 떨어진 요즘에는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게 되었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결핵균처럼 보인다고 치료를 한 경우, 결핵균이 아니고 다른 항산균일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엉뚱하게 다제 내성결핵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실 이처럼 결핵이 아닌 항산균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들의 대강을 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들을 비결핵항산균이라고 한다. 또 이들에 의한 질환을 비결핵항산균증이라고 말한다.

이 질환은 결핵과 달리 사람 사이의 전염은 없다. 다만, 일반적인 결핵보다 치료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이들 균이 발견된다고 무조건 질병은 아니다. 아무런 질병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또 질병으로 발전한다고 하여도 매우 진행이 느린 경우가 있다. 이들의 이런 여러 경과와 병원균의 정확한 분류를 통해서 치료 결정을 신중히 하게 된다.

사실 이 균주에 대한 관심은 그리 최근이 아닌 한참 전에 갖게 되었으나 한국 내의 자료가 모아진 것은 최근의 일이며, 그래서 치료 성과는 최근에 경우 나오고 있고 아직은 한국에서의 정확한 치료 방침이 나오지 못한 상태로 외국의 지침을 인용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卍